

집값·환율 불안...한은 기준금리 2.5% 또 동결

금통위, 3차례 연속 똑같은 기조
정부 '부동산 강경 대책'에 공조
"상황 그대로면 11월 인하 불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선포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기를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포인트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통위가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조정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

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증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 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증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내년 성장을 회복 전망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줄어든 점도 금통위원들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대체로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11월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부동산, 환율 관련 우려가 계속 커지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인재양성 직업훈련기관 협업 시너지 키운다

산인공 광주본부 '시너지+ DAY'
국가인적자원개발 35개 기관 참여
산·학·관 협력 산업경쟁력 강화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공단)는 23일 "전남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능력개발사업 확산을 위한 시너지+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일학습병행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각기 운영되던 훈련기관이 융합과 협업을 통해 기업훈련의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트로닉스 등 중소기업 담당자와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일학습병행·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등 35개 훈련기관 전담자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를 통해 훈련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록 산·학·관 협력기반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 전략을 논의했다.

공단 일학습병행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와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기업인재혁신부(062-970-1781~4)로 연락하면 된다.

윤육균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시너지+ DAY를 계기로 광주지역 중소기업이 능력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해 인재를 키우고 AI시대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단은 기업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인재양성 모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전남지방우정청, 섬마을 소외이웃 나눔 실천

완도 3곳 후원물품 전달

전남지방우정청은 23일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완도군 도서지역 3곳을 선정해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서지역의 접근성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획했으며 그 중 급당도와 생일도는 전남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이 직접 방문해 후원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한 이불 외에 식료품, 물티슈 등 약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해 독거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등 섬마을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김기흥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도서지역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두루 살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상생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쿠광, 함평 등 인구감소 7개 지역 과일 6천600t 매일

쿠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직매입한 과일이 6천600t(톤)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쿠광은 전남 영암·함평, 충북 충주, 경북 성주·의성·영천·고령 등 7개 지역에서 올해 1~9월 사과·참외·자두·수박·딸기 등 30여종의 과일을 매일매일 새벽 배송을 통해 판매했다.

쿠광이 이들 7개 지역에서 사들인 과일 양은 2

02년 3천400t, 2023년 5천610t, 지난해 5천870t 등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는 7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쿠광은 물류 인프라를 인구감소지역·도서·산간으로 지속 확대하고 올해 영암·의성·고령군 등과 판로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매일매일 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